Entertainment p/16

성추행 혐의 고영욱 구속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제2547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4

아이돌 줄줄이 연기 외도

숯가마 찜질방 1600번 광클릭!

강추위 계속되자 '따뜻한 알바 찾기' 경쟁 치열
핫요가학원·식물원·곤충박물관 등 인기 최고

태어나 처음 겪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학비 걱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알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새해 들어 27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따뜻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른바 '귀족 알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뜨거운 불을 직접 관리하는 숯가마 찜질방, 실내온도를 일정 정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식물원, 곤충 박물관, 핫요가 학원 등이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말부터 친구 소개로 경기도 한 식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한정윤(21)씨는 "하루 8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핀셋으로 종자를 선별하는 고된 일이지만 따뜻한 온실 속에서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핫요가 학원 아르바이트생은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고객을 상담하는 일이 주 업무라 특이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가 발상지인 인도 현지 기온(32~36도)과 비슷하게 맞춘 뜨거운 강습실에서 요가를 배울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이 주어져 매력적이다.

빵집에서 겨울철 별미인 만두·찐빵 찌기, 전통찻집에서 서빙하기 아르바이트도 재미가 쏠쏠한 '체험 알바'로 꼽혔다. 전통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한여주(23)씨는 "매일 공짜로 대추차, 유자차 등을 마셔서 그런지 이번 겨울엔 감기도 안 걸렸다"며 만족해했다.

이들과는 정반대로 찬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일해야 하는 직종은 대학생들 사이에 '노예 알바'로 불린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손경민(21)씨는 "추운 날 세차기를 돌리다 손발에 동상이 걸렸다"며 "특히 한 손님이 어린 자녀에게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고 씁쓸해했다.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박찬경(24)씨는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요리 재료를 씻느라 손이 트고 갈라져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은 변함이 없지만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혹한이 계속되면서 '귀족 알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보통 클릭 수 1000회를 넘으면 상당한 관심을 받는 구인 게시물로 치는데 숯가마 구인 공고는 보통 1600회, 핫요가 학원은 1100회 이상 클릭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을 미끼로 접근해 얻은 개인정보로 돈을 뜯는 신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알바몬 관계자는 "최근 높은 급여를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해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기자 minji100@metroseoul.co.kr

장미란 아름다운 은퇴 "이젠 IOC선수위원 번쩍 들겠다" 역도 여제 장미란이 10일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눈물의 은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연신 눈물을 훔친 그는 "런던올림픽을 마치고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3가지를 생각했다. 몸과 마음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확실한 결론이 났다"며 "IOC선수위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바벨 인생 15년간 장미란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한국 역도의 대들보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아버지 장호철씨와 어머니 이현자씨는 기자회견 뒤 자랑스러운 딸의 목에 꽃을 걸어줬다. /연합뉴스

미션오일 10만km 주행후 교환해도 문제없다

상당수 국내 운전자들이 미션오일로 통하는 자동차 자동변속기유(ATF) 교체 시 바가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알려준 적정 교체 주행거리(4만~5만km)가 2배가량 늘어도 이상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TF 교환비는 공임을 포함해 통상 10만원대에 이른다.

1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동차 업체의 휘발유 차량 12대(2008~2011년식)를 대상으로 5만km, 10만km 주행 후의 ATF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새 ATF와 동점에 큰 차이가 없었다.

차량 상태나 운행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만km 주행 뒤 ATF를 교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 업체의 차량 매뉴얼에서도 ATF 교환주기를 주행거리 8만~10만km로 권장하고 있다고 석유관리원은 전했다.

◆연간 약 450억원 비용 절감

이 기관은 ATF 교환주기를 5만km에서 10만km로 연장하면 연간 약 45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폐ATF 처리 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면 기대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국민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자동차 소모품을 자주 교환함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자동차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연구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나쁜 아저씨 혼내주세요" 검사 울린 편지

성폭행 피해 어린이가 재판부에 "범인을 혼내달라"고 쓴 편지. 이 편지는 성폭행범 공판에서 어머니에 의해 공개돼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연합뉴스

나주 '이불째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제판사(판사)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에요(이에요).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가신다 해서 제가 편지 썼어요. 저는 못 간대요. 판사 아저씨 나를 주기려(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또 대리고(데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제가 말한 그대로 엄마께 아저씨한테 육편지 보내도 돼죠(되죠). 제가 쓴 편지대로 소원 드려(들어)주세요. 제판사(판사)아저씨랑 엄미랑 기차(같이)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10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나주 성폭행 피해자 A(8)양의 어머니 B(38)씨는 딸이 수첩에 쓴 편지를 울먹이며 읽어내려갔다. A양은 300자 짧은 편지에 '(성폭행범을) 많이많이 혼내주세요'라고 세 번이나 적었다.

A양은 지난해 8월 30일 새벽 잠을 자던 중 피의자 고종석에게 이불째 납치돼 변을 당했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가고 싶어" 말하기도

결심 공판을 참관한 B씨는 "피의자 고종석이 사회로 절대 못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바람을 전하기 위해 나왔다"며 "곤 잇으면서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 거나, 아저씨가 목 조르는 게 자꾸 생각난다는 말도 한다"고 흐느꼈다. 비 내리던 날 피해를 입은 A양은 지금도 비가 오면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지검은 고종석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정희기자 unique@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일자리는?

연봉 2800만원·정년 62세

국민들은 최소한 230만원의 월급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62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또 10명중 1명은 일자리 나누기에 긍정했다. 아울러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선호해 생산직 근무환경의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8~27일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전화 설문(표본 오차 95% ±3.09%)해 10일 내놓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보고서의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적어도 월평균 약 230만원, 연봉으로는 2800만원을 원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 취업 계층인 20대는 226만원, 최근 취직이 부쩍 느는 50대는 220만원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42만원으로 여자(215만원)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컸다.

희망 정년은 평균 62세로 잡혔다.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세(31.8%)가 이었다. 70세는 14.5%였고, 55세도 10.3%나 됐다.

화이트칼라(사무직)를 원하는 응답자는 블루칼라(생산직)의 3배를 넘었다. 희망 근무 형태로 사무직을 꼽은 응답자는 56.7%에 달했지만 생산직은 15.9%에 불과했다. 영업직은 7.1%로 가장 인기가 없었다. /김학상기자 lazyhand@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감염관리 강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대책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와 분쟁에 따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규정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의무 건강검진 항목을 앞으로 B형 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 질환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계약 해제에 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용 요금, 대표자 자격 소지 여부 등을 해당 산후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박동호기자

"빨리 의사 되고 싶어요" 10일 인천시 남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문화홀에서 열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의사복을 착용하고 신생아 관리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동결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다부진 각오 10일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환경조각학과 실기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손등에 '나는 할수 있다'는 각오를 적은 후 시험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2013학년도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반값 등록금'을 유지해 인문사회계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으로 동결된다. /연합뉴스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

절반 일자리 못지키고 이직·실업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 이동과 근로조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121만1000명 중 2011년 10월 기준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근속자는 65만9000명(54.4%)이었다. 55만2000명(45.6%)은 다니던 직장을 떠났다.

직장을 나온 근로자 중 38만3000명(69.3%)는 이직했지만 9만8000명(17.8%)는 취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접었으며 7만1000명(12.9%)은 실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직자 중에서도 자발적 퇴사는 34만3000명(62.4%)이었으며 비자발적 이직은 20만7000명(37.6%)이었다. 특히 실업 상태의 근로자 51.8%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나왔다고 답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2011년 10월 기준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51만9000명(42.9%)이었으나 이 중 12만6000명(10.5%)만 정규직 전환 혹은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했고, 39만2000명(32.4%)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율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동호기자 ajeven@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명 정규직 추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4만6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전달키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3495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4만6676명(15.9%)에 이른다.

기재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아닌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이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밤동호기자

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

비난여론 의식해 10일만에 다시 서비스…신한·국민·롯데 등 동참

카드사들이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재개했다. 무이자 할부 중단 이후 열흘만이다. 10일 신한카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특별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에 들어갔다.

대상 업종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가전, 자동차 보험, 패션, 항공권, 병원, 방문판매 등 11개 업종으로 대형가맹점뿐만 아니라 중소형 가맹점까지 모두 해당한다.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한카드가 자체적으로 소화해 유통점과의 갈등을 피했다.

이날 롯데카드도 내달 17일까지 전 고객에게 모든 업종과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맞불을 놨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 배려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내달 17일까지 중소형과 대형가맹점 모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 등도 일정한 조건을 달아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에 동참했다. 현대카드는 1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 편의 업종인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가전, 차량 정비, 손해보험, 항공사, 면세점, 여행업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주기로 했다.

국민카드는 1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통, 온라인쇼핑 등 10대 업종에 대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하나SK카드도 내달 17일까지 모든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중단을 2월1일로 미뤄놨던 삼성카드도 조만간 신한카드와 유사하게 생활 편의 업종 중심으로 무이자 할부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블랙아웃 막자" 20분 훈련에 촛불 켠 민원실 정전대비 위기 대응 훈련이 열린 10일 대전 유성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촛불 아래서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는 이 카드가 가장 혜택 많아요" 자동추천

스마트폰 전자지갑 나온다

스마트폰 전자지갑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나온다. 최대 80장의 모바일카드가 들어가고 스마트폰 소지자가 이동하는 장소마다 최대 부가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도 탑재된다. 카드업계의 애플이 되겠다는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비씨카드가 내놓을 전자지갑은 신한카드 등 기존 카드사가 스마트폰에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모바일카드나 전자지갑을 출시했던 것에서 한층 진화됐다.

비씨카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 가서 전자지갑을 터치하면 해당 매장에서 가장 적합한 카드와 혜택이 자동으로 제시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전자 지갑만 있으면 거기에 담긴 여러 장의 카드 가운데 본인이 고심해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터넷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드 소지자의 결제 환경을 최적화해주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전자지갑에 모바일카드를 이론적으로는 80장까지 넣을 수 있지만 막상 쓰려면 어느 카드가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당에 가서 전자지갑만 클릭하면 해당 식당에서 가장 부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골라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

결혼식장 '태평홀' 출입기자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민청 내 태평홀에 마련된 결혼식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결혼식·콘서트… '서울시민청' 내일 개관

서울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시민청(www.seoulcitizenshall.kr)을 시청 신청사 지하 1, 2층에 12일 정식 개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청은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과 연결돼 있으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커다란 귀 모양의 현판이 12일 오전 11시 개관식에서 제막된다. 시민청의 청은 관청이란 의미의 청(廳)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과 경청의 뜻을 담은 '들을 청(聽)'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시민청과 서울도서관, 하늘광장은 모두 연결돼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억압적이며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덜어 시민들의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

세미나공간인 '동그라미방'과 행사 개최에 좋은 '이벤트룸', '활짝라운지' 소통과 콘서트, 결혼식도 가능한 '태평홀'은 가변성을 높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동호기자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당시 기약없이 회사를 떠났던 무급휴직자 450여 명이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한다.

쌍용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생산물량 증대 및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2009년 8월 무급휴직자 455명이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하는 가운데 희망퇴직자 1904명과 정리해고자 159명은 복직에서 제외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8월 2646명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04명이 희망퇴직, 159명이 해고, 8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 또는 분사했다.

향후 쌍용차는 무급휴직자 복직과 관련한 조건과 절차, 생산라인 운영방안 및 라인배치 근무인원 등 제반 사항을 다음달 초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장 미배치자에 대해서는 복직될 때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무급휴직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 소통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희기자 unique@

박수 환영 10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2009년 8월 인력 구조조정 때 회사를 떠났던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의 복직에 합의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 쌍용차 코란도C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박수로 복직 환영을 반기고 있다. /연합뉴스

軍, 병장월급 21만6000원으로 단계적 인상…2017년까지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이 병장을 기준으로 21만600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다. 인수위 보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에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4> 글 그림 박상철

호남총리 꼭 고집할 필요있나

인수위 "일 잘하는 사람이 호남 출신이면 좋겠지만…"
김영란·목영준·조순형·이완구 등 비호남 인사 하마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대통합이 호남 총리 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호남 출신 총리를 발탁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조각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박 당선인이 지역을 안배한다고 일부러 더 뛰어난 사람을 두고 출신지를 골라 다른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호남 출신으로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거론됐다.

대신 부산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해 충남 출신의 조순형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이 폭넓게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여성 대통령과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목 재판관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공동 추천할 정도로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호남 총리'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장·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5대 권력 기관장으로 호남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균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박 당선인, 중국특사 접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으로부터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손톱 끝 가시' 증여세 특례 한도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11일 첫 업무보고 대상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 분야를 포함한 보고를 받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소기업인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현 증여세 특례 규정은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의 대물림만 손쉽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김민준기자

'평양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에릭 슈미트(왼쪽)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10일 베이징 공항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4
발행·편집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형 희
광고국장 직대	김 준 열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02

한파에도 기자·경찰 북적 "식당 손님 늘었어요"

'인수위 특수' 설레는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일대 식당들은 영하 날씨 속에서도 훈훈함을 느낀다.

10일 현재 인수위 관계자들과 경찰·취재진들로 근처 음식점들이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11일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각 부처 관계자와 각계 인사들로 매출이 더욱 늘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수원 근처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한 식당 주인은 "날씨가 추운 평일에는 손님이 줄어드는데 지난 6일 인수위 출범 이후 손님이 매일 붐빈다"며 "음식이 빨리 나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나 찌개류가 인기"라고 웃었다.

인근 중국음식점 사장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식당을 찾는 낯선 손님이 매일 20명 정도 늘었다"며 "주로 볶음밥·자장면 등 평범한 식사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 경찰은 '특콜할인' 하는 곳도

인수위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인수위 앞에서 연일 이어지면서 경찰을 우대하는 식당도 생겼다.

삼청동 한 백반집 사장은 "경찰을 상대로 특별히 백반 정식 가격을 1000원씩 깎아주고 있다"며 "평소보다 3~4 테이블 정도 손님이 늘었는데 인수위 관계자보다 경찰관이 많을 정도"라고 밝혔다. /정승희기자 unique@

제 식구 풀어주는게 대통합?

'MB 특사 검토' 與도 비난

청와대의 임기 말 특별사면권 남용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다.

10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 측근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이번 사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감사 도중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연합뉴스

/배동호기자 eleven@

방송대 매시업 영상 유튜브 강타 방송통신대학교 홍보단이 제작한 '매시업(mash up)' 영상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지 13일 만인 10일 조회수 9만 건을 육박하고 있다. 방송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제작한 매시업 영상을 보려면 유튜브에서 '대학 최초 매시업'을 검색하면 된다. /방송대 제공

Bullsone
RainOK
스프레이체인
눈길운전의 안전 필수품
Bullsone
RainOK
스프레이 체인
눈길운전의 안전필수품
눈길엔 꼭,
뿌려주세요!
예상치 못한 눈길 미끄러움, 타이어 공회전 시 당황하지 마세요!
강력한 'RainOK 스프레이체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Spray Chain Coating
Snow Road
눈의나라 핀란드
I LOVE MY CAR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洗黑錢131億

metro Mexico

boteo virtual qui
hular más biciclet

고장난 자전거로 못하는게 없는 회사

멕시코 벤처 회사 '자전거를 고쳐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녹슬고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튜닝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라틴아메리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이데아미'를 통해 자금도 모으고 있다. 모금 목표액은 14만5000페소(약 1200만원)다. 공동 창업자인 오스카 수니가는 "자전거 부품으로 보석상자를 만들고 화분 등도 튜닝한다"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금액은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metro Chile

Por primera vez

산티아고 '탄소배출 제로' 야심찬 도전

남미 최초의 '스마트 시티'가 칠레에 들어선다. 8일(현지시간) 메트로 산티아고는 올 3분기 산티아고가 스마트 시티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마트 시티 산티아고'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구체적 사업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공공시설의 LED 조명, 분수를 관리는 태양열, 스마트 주택 건설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사업 비용은 1000만 달러(약 105억원)로 책정돼 있다.

8개월간 3500번 계좌이체 왜?

홍콩 검찰, 1조8000억원대 자금세탁 적발… 중국발 '검은돈' 대거 유입 골머리

거액의 불법 자금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속속 흘러들어와 홍콩 당국이 비상이다.

중국인 뤄허우청(22)은 2009년 7월 홍콩에서 비서대행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와 개인 계좌를 개설했다. 그는 9월 260만 홍콩달러(약 3500만원)를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수표, 현금,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액을 예금하고 이체했다.

2010년 4월까지 뤄는 총 4800번 입금하고 3500번 자금이체를 했다. 그는 4자리 거액을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을 매매하는 데 사용했다. 이를 보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계좌 자금을 동결시키고 뤄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가 회사 설립 후 8개월간 총 131억 홍콩달러(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어떠한 업무나 납세 기록이 없으며 뤄가 유일한 사장이자 주주다. 8일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뤄가 설립한 회사는 유령회사다. 고액의 자금이 계좌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보아 그가 이 자금이 범죄 활동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은 증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뤄를 법정구속할 예정이다.

한편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꾼을 모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3세 중국 남성은 '돈세탁'을 통해 약 800만 홍콩달러(약 11억원)를 벌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홍콩에 은행 계좌가 없는 도박꾼들에게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해 판돈을 예금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중국은행, 항생은행, 치유은행의 계좌 7개를 이용, 약 1억3000만 홍콩달러(약 180억원)의 불법 자금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돈세탁 관련 죄목 5개에 대해 가정 자산조사를 거쳐 다음달 처벌받게 된다.

/홍콩=홍선미기자

metro France

le succès de

佛 전기차시장 지난해 2배↑ 오토리브 덕분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공공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 덕분에 전기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유럽 전기자동차협회 프랑스 지사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 선두 주자인 푸조-시트로엥(PSA)은 지난해 274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볼로레 그룹은 2011년 말 시판된 소형 블루카를 1830대 판매해 2위 자리를 꿰찼다. 3위는 닛산의 리프(524대), 4위는 르노의 플루언스(343대)가 차지했다.

오토리브 차량으로 선정된 블루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리 시민들에게 장기 대여되고 있다. 볼로레 그룹은 향후 파리와 45개 교외지역에 1100곳의 정류장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블루카 1750대를 운행 중인데 올해 안에 300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블루카는 4인승 승용차로 최고 시속 130㎞를 낼 수 있고, 최대 주행거리는 250㎞다. 운전면허를 가진 파리 시민은 누구나 보증금을 내고 오토리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행 요금은 회원권의 기간과 운행 시간에 따라 다양한데 30분에 4유로(약 6000원)에서 8유로에 이른다.

전기차협회 프랑스 지사장인 조제프 베레티는 "블루카를 찾는 파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은 2배 넘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구매 보조금과 올해 출시될 스마트 전기차 덕분에 앞으로 시장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리 이승률 기자·강기 조선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바람난 '여름 과부' 칠레 사회문제

지하철 문에 머리카락 끼인 여성

KOSDAQ

1/4	1/7	1/8	1/9	1/10
504.54	506.72	509.01	511.64	516.48 (+2.54)

지수	
Nikkei (일본)	10652.54 (+74.07)
Hang Seng (홍콩)	23354.31 (+135.84)
Shanghai (중국)	2283.66 (+8.32)
Dow Jones (미국)	13390.51 (+61.66)

EXCHANGE RATE

통화	
달러	1059.00
엔(100)	1200.00
유로	1383.48
위안	170.14

10대 그룹, 더 막강해진 '넘사벽'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78%·매출의 54% 차지

국내 경제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8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지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제조업) 상장사 1345곳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 909조3000억원 중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 80곳의 매출액은 49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4.2%에 달했다.

그룹별 매출액은 삼성이 152조5000억원으로 16.8%를 차지했고 현대차 100조5000억원(11.1%), LG 73조7000억원(8.1%), 포스코 43조8000억원(4.8%), SK 42조6000억원(4.7%), 현대중공업 24조9000억원(2.7%), 롯데 24조4000억원(2.7%), GS 13조원(1.4%), 한진 10조5000억원(1.2%), 한화 6조7000억원(0.7%) 등이었다.

또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42조3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56조8000억원)의 74.5%였고 순이익은 36조9000억원으로 전체 순이익(47조3000억원)의 78.1%로 더욱 컸다.

10대 그룹 경제집중 비중 추이

전체 1345개 상장사 대비 10대 그룹 상장사 80곳 매출액 비중 (단위: %)

2008	2009	2010	2011년	2012년 1~3분기
52.1	53.6	55.2	54.0	54.2

자료/에프앤가이드

10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52.1%에서 2009년 53.6%, 2010년 55.2%로 커졌다가 2011년 54.0%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54.2%로 다시 확대됐다. 4분기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0대 그룹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대 재벌 9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8일 현재 733조9000억원으로 전체 시총(1267조5000억원)의 57.9%였다.

삼성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36조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현대차 10.3%, LG 6.1%, SK 5.5%, 포스코 3.1%, 롯데 2.2%, 현대중공업 1.7%, GS 1.0%, 한화 1.0%, 한진 0.4% 등이었다.

/박상준기자 zen@metroseoul.co.kr

국산차 생산량 '후진'

지난해 판매실적 2% 감소

한동안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던 국산 자동차 판매 실적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생산은 내수 판매 부진과 자동차 업계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수출(대수)은 0.4% 증가했다. 유럽연합(EU)과 중남미에 대한 수출이 각각 6.4%, 12.7% 감소했으나 북미(18.6%), 동유럽(8.3%), 아프리카(12.6%)에 대한 수출은 늘었다.

수출액은 4.1%로 수출 대수보다 증가폭이 컸다. 대형차와 중형차 수출이 전년보다 30.7%, 3.6% 증가하는 등 고가 차종이 늘어나 수출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5.5% 증가한 245억9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고유가, 경기 위축, 신차 부족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4만1715대로 2.4% 감소했다. 수입차는 13만858대로 24.6% 증가했으나 국산차가 141만857대로 4.3% 감소했다. /박성훈기자

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전망

커피 웃고 교육 울고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커피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교육업은 불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00곳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커피'(118)가 원두 가격 하락과 원두커피 애호가 증가세에 힘입어 최고치인 118을 기록하며 호황이 예상됐다. '문구 사무'(104)도 신학년도 특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상반기 경기가 다소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교육'(64)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불황이 전망됐고, '치킨'(67)과 '주류'(76)도 각각 신규 가맹점 모집 부진과 불황에 따른 유흥비 지출 감소로 상반기 전망이 어둡게 나타났다. /김지성기자

봄 향한 그리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플라워숍 매장에서 고객들이 집안을 화사하게 바꿀 수 있는 꽃 소품을 구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원화절상 등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하락

수입물가와 수출물가가 석 달 연속 동반 하락했다. 원화가치 상승과 유가 하락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8% 떨어졌다. 2009년 10월 -15.3%로 급감한 후 3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전월 대비로는 1.1%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절상된 것이 지난해 수입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지연기자

눈 많이 내리는 한국 보며 아우디 지사장 어깨 '으쓱'

신차 A5에 장착 '콰트로' 눈길 안전운행에 큰 강점

지난해 12월 취임한 요하네스 타머(사진) 아우디 코리아 대표가 한국의 최근 겨울 날씨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몇 년 새 강설량이 급증하면서 겨울철 주행에 대한 국내 운전자의 습관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0일 5도어 쿠페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출시행사에 동참한 타머 대표는 "한국에 있는 한 달간 눈이 정말 많이 오더라. 아우디의 전매특허인 '콰트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콰트로'는 아우디의 상시 4륜구동 시스템으로, 통상 4륜구동 자동차는 눈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특히 콰트로는 상황에 따라 전자식으로 지원하는 경쟁사의 4륜구동 방식과 달리 생산할 때부터 네 바퀴로 움직이는 '풀타임' 방식이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날 출시된 A5 역시 콰트로를 장착했다. 2.0 TDI 터보 직분사 디젤 엔진, 7단 S 트로닉 듀얼클러치 자동변속기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감을 살렸다.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38.8kg.m이며, 복합연비는 15.0km/ℓ다. 가격은 5840만원부터다. /박상준기자 zen@

아우디 코리아가 1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5-도어 쿠페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가계대출 5조 급증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앞두고 2006년 11월 이후 최대폭 늘어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6년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은 크게 줄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난 466조5000억원이었다.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하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월 5조1000억원 늘어났던 데 비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2006년 11월 6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6년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316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지난 2002년 9월 5조7000억원 증가한 후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윤상규 한국은행 금융시장팀 차장은 "정부의 한시적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3조9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연말 요인으로 감소했다. 12월 중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1조9000억원 줄어든 5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조1000억원)보다도 감소폭이 커졌다.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 등 연말 요인으로 전월보다 7조7000억원 감소한 44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 역시 연말 효과에 경기 둔화에 따른 자금 수요 감소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4조1000억원 줄어든 142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유성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iCOOP 생협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10일 오전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iCOOP생협 독자인증 선포식'에서 iCOOP생협 관계자들이 독자인증 마크를 부착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iCOOP생협 독자인증은 물품의 안전성과 유기농업의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의 다양성 등을 안전기준에 따라 독자 평가해 등급을 표시하는 인증체계다. /연합뉴스

명품처럼 사피아노 감싼 '울트라 플립'

슈피겐SGP(www.spigen.co.kr)는 10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편의성까지 향상시킨 아이폰5용 '울트라 플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울트라 플립'은 고급스러운 사피아노 무늬의 프리미엄 인조가죽 커버와 내구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하드케이스가 결합된 플립형 케이스다. 고급스러운 커버와 함께 기기를 고정시키는 하드케이스 부분을 아이폰5 후면 알루미늄 컬러에 맞춘 메탈슬레이트, 새틴실버로 구성해 아이폰5와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범퍼형 케이스와 달리 인조가죽 커버와 하드케이스가 기기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에 충격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커버 안쪽 역시 부드러운 조직세사 원단을 사용해 화면 손상을 막아준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설계도 돋보인다. 커버 안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1장의 카드를 수납할 수 있다. 아이폰5 블랙 컬러에 맞춘 실버 색상부터 화이트, 네이비, 브라운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3만7500원.

상가공급량 5년만에 최저

지난해 4분기 상가 공급량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데다 경기침체와 시장 불안감 등 삼중고 맞았다. 연말 밀어내기 분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도 공급 물량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총 48개소의 상가 공급이 진행됐다. 전분기 대비 6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수치다. 연말 밀어내기 분양 효과로 전분기보다는 공급량이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동기 공급 물량으로는 가장 적은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단지 내 상가가 17개 단지로 가장 많이 공급됐고, 근린상가 15건, 기타상가 14건 순이다. /[illegible]기자

1분당 1500명이 원하는 수분크림의 정체는?

새해 첫 방송부터 주문폭주…8억 매출

96시간 보습 한정판 드리티해피뉴이어

라라베시의 '악마크림'이 새해에도 수분크림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라라베시는 최근 진행된 CJ오쇼핑 방송에서 분당 1500콜의 주문 폭주를 기록하며 한 시간 만에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홈쇼핑 업계에서 베스트 상품 수는 분당 평균 300~500콜로 분당 1000콜이 넘으면 히트 상품에서 '기록 상품'으로 분류된다.

분당 주문자가 네자릿수를 넘자 주문 상황 화면에 네 개의 별이 표시된 모습

라라베시 악마크림은 지난해 초 해외 유명 수분크림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악마의 보습력'을 인정받으며 등장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판매 신기록 달성, 오픈마켓 보습 카테고리 1위 등을 기록하며 건조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말 홈쇼핑 방송 PD와 MD가 뽑은 '2012년 가장 팔고 싶은 아이템 1위'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수분크림의 대세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인기는 최강의 보습력과 함께 꾸준한 제품 개발에 있다.

라라베시 악마크림은 올 겨울 대한민국 최초 96시간 보습이 유지되는 '96크림'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견과류 영양크림 '뇌르크림'을 론칭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한정판 '프리티 해피뉴이어'를 홈쇼핑에 선보이며 건조녀들의 피부 고민을 끊임없이 해결하고 있다. 문의 www.lalavesi.com 070)4142-6240 /박지원기자

당신이 꿈꾸는 웨딩, 말해줘요

그랜드 힐튼 서울 24일까지 '웨딩 타이틀 공모전' 이벤트

그랜드 힐튼 서울이 예비 신랑·신부의 마음에 인상 깊게 남을 문구를 선정하는 '웨딩 타이틀 공모전'을 실시한다.

예비 부부 마음속에 새겨질 타이틀을 뽑아 해외 힐튼 호텔 숙박권(1등), 국내 힐튼 계열 호텔 숙박권(2등), 그랜드 힐튼 서울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3등) 등을 증정한다. 또 공모된 타이틀을 바탕으로 2월 말 웨딩쇼를 열 계획이다.

24일까지 그랜드 힐튼 서울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blog.naver.com/grandhiltonsl)를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5일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300명 이상 웨딩 시 예식 당일 주니어 스위트 1박, 공항까지 리무진 서비스, 시식 2인 무료, 라 끄리니 드 파리 스파 이용권, 홍제역에서 호텔까지 식전 1시간 동안 하객용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예식 전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라 끄리니 드 파리 신부 식전 케어 프로그램 할인권을 증정한다. 문의 02)2287-8079 /박지원기자

'아이스와인의 대표' 이니스킬린 다시 상륙 신동와인이 10일 세계 최고의 캐나다 아이스와인 '이니스킬린(Inniskillin)'을 국내 재출시해 선보였다. 이니스킬린은 전세계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으로도 유명하다. 국내에는 이니스킬린 골드 비달과 이니스킬린 리슬링 2종을 판매한다.

ABC마트 '겨울 총결산 세일'

27일까지 최대 50% 저렴

세계 최대 슈즈 쇼핑센터 ABC마트가 27일까지 '겨울상품 총결산 세일'을 진행한다.

겨울 시즌 필수 아이템인 부츠와 방한의류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1만9000원짜리 호킨스 방한세의 '히트브레스'를 9900원에 균일가로 선보인다.

이 밖에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반스(VANS)의 류 전품목과 유명 브랜드 가방 2만5000점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문의 www.abcmart.co.kr

스타보더 강습받고 멋지게 날자

휘닉스파크 스노보드캠프 2박3일 일정 오늘 스타트

휘닉스파크가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국가대표급 프로보더 강사들로 구성된 '제2회 올스타 스노보드 캠프'를 개최한다.

2박3일 동안 주·야간 강습, 자유 라이딩, 영상 분석을 통한 스노보드 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휘닉스파크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박현상, 구본률, 김건우 등 스타보드 강사에게 화려한 스노보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1차 캠프를 시작으로 2월과 3월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익스트림파크 홈페이지(www.extremepark.co.kr)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40명만 받는다. 참가비는 휘닉스파크 시즌권 소지자는 20만원, 시즌권이 없는 경우 25만원이다. 비용에는 조·석식 및 간식, 유스호스텔 숙박까지 포함된다. /박지원기자

비나리 판타지·벨루가 쇼…롯데월드로!

롯데월드가 알찬 방학 나들이를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대북 연주, 태극무 등 동양적 색채와 현대적 감각의 음악을 가미한 신년 복 기원 창작 판타지 퍼포먼스 '민족 비나리' 공연을 이달 한 달간 매일 오후 3시에 선보인다. 12일 오후 6시에는 실력파 기타리스트 현상원이 준비한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오후 8시에는 원음방송의 공개방송 콘서트가 마련돼 박스타, 레드애플, 위사이트, 원더보이즈 등 실력 있는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짜릿한 무대를 선사한다.

롯데월드가 새로 선보이는 국내 최초 캐릭터 토크쇼인 '벨루가 토크쇼'에서는 말하는 흰 고래 벨루가를 만나 재치 넘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계사년을 맞아 뱀띠 손님은 자유이용권을 약 30% 특별 할인 해준다. 문의 02)411-2000

오랫동안 기다려 온!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라이스 뮤지컬의 명작!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ANDREW LLOYD WEBBER & TIM RICE'S MUSICAL

2013.2.12~2013.4.11 샤롯데씨어터

출연 김선경 최정원 리사 조성모 송창의 정동하 임시완 조남희 김장섭 이정용 이홍구 김재희

www.JATD.co.kr

나열과 결별한 한혜진 "기성용과 열애? 당혹"

배우 한혜진이 축구선수 기성용과의 열애설을 일축했다.

한혜진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다.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봤는데 대응할 가치도 없어서 먼저 나서서 반박하지도 않았다"며 "최근 결별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런 소문까지 퍼지니 당혹스럽다. 지인들도 속상해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말 한혜진과 가수 나얼이 9년간의 교제를 끝내자 결별이 기성용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기성용이 지난해 8월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MC인 한혜진을 이상형으로 꼽은 것이 소문의 발단이다.

한편 나얼은 같은 증권가 정보지에 실렸던 자신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요새 떠도는 이상한 헛소문에 속지 마시길"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긴 바 있다. /유순호기자

아이돌 줄줄이 '연기자 외도'

시크릿 한선화·달사벳 아영 등 드라마로 데뷔

새해 벽두부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연기자 외도가 줄을 잇고 있다.

시크릿의 한선화는 다음달 방송될 KBS 2 새 월화극 '광고천재 이태백'으로 데뷔 4년 만에 연기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연기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그가 맡은 역은 주인공 이태백(진구)의 여동생 소리이다. 배우를 꿈꾸는 내레이터 모델로 수다스럽고 오지랖이 넓어 늘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키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인물이다.

한선화는 "소리의 캐릭터가 실제 내 성격과 많이 비슷해 벌써 친근감이 느껴진다. '연기에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달샤벳의 아영도 이 드라마로 연기자 신고식을 치른다. 그는 바진가(고창석)가 운영하는 인쇄 광고대행사 지라시의 인쇄를 디자인과 출력, 경리, 비서 업무까지 담당하는 정보산업고 시각디자인과 3학년 공선혜를 연기한다. 인터넷 연애를 달고 살며 개성 있는 헤어와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4차원 소녀다.

아영은 "첫 정극 연기라 걱정이 앞서지만,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KBS 4부작 드라마 스페셜 '시리우스'에서 서준영의 아역으로 출연 중인 제국의아이들 멤버 박형식은 3월 방송될 케이블 채널 tvN 월화극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에 캐스팅됐다.

또 2PM의 황찬성은 23일 첫 방송되는 MBC 수목극 '7급 공무원'으로 정극에 데뷔한다. 비스트의 윤두준은 다음달 13일 첫 방송되는 KBS2 수목극 '아이리스2',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는 14일 첫 방송되는 SBS 월화극 '야왕'에 캐스팅돼 '연기돌'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K팝스타2' 100억 매출 올릴 듯

드라마·예능 제작사 초록뱀미디어가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2'의 제작으로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는 10일 "SBS와 'K팝 스타 2'의 제작 공급 계약을 총 55억원에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시즌 1 계약금인 33억원에 비해 67% 증가한 금액이다.

이 밖에 협찬 광고, 음원 수익, 판권 및 기타 부가 사업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총 매출을 1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박준형기자

아날로그는 따뜻합니다
종이는 느립니다
종이는 아날로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봅니다
종이는 따뜻합니다
아날로그는 따뜻합니다
resolute
Forest Products
AbitibiBowater의 새로운 이름 Resolute Forest Products!

'성추행 혐의' 고영욱 결국 구속

미성년자를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네 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 혐의로 고영욱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고영욱은 유치장에 머물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13세 여중생 이모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18세 김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김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영욱을 고소했지만 소를 취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거쳐 3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순호기자 suno@

고영욱이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침울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말춤? 싸이만큼 못 춰요"

영화 '잭 리처'의 남녀 주연배우 톰 크루즈(오른쪽)와 로자먼드 파이크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형석기자

영화 '잭 리처' 주연 톰 크루즈 6번째 내한

여배우 파이크와 모텔 키스신 불발 등 신체접촉 없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친한파 톱스타 톰 크루즈(51)가 새 영화 '잭 리처'를 알리기 위해 연출자인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 극중 상대역인 로자먼드 파이크와 한국을 찾았다.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무려 여섯 번째 내한이며 2011년 12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이후 13개월 만이다.

9일 오후 전용기로 입국한 크루즈는 다음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면서 "사랑하는 한국 팬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한번 불러줄 수 있느냐는 한 취재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는 "잘 알고 있지만 (싸이만큼) 잘할 자신이 없다"며 재치 있게 사양했다.

크루즈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남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적이 있다.

17일 개봉될 이 영화에서 그는 주인공 잭 리처 역과 제작을 겸했다. 미국 전역을 방랑하던 전직 군 수사관 리처가 변호사 헬렌과 힘을 합쳐 도심 총기 참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후의 악덕 간설회사와 일전을 벌인다는 줄거리다.

국내 관객들에게 '007 어나더데이' '타이탄의 분노' 등으로 익숙한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의 지성파 여배우 파이크는 키스 등 신체 접촉(?) 장면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극중 모텔에서 크루즈와 키스할 뻔하지만 끝내 하지 않는다. 이 장면을 아쉬운 마음으로 볼 모든 여성 관객들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기자회견을 마친 크루즈는 이날 오후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 행사장으로 이동해 레드카펫을 밟고 팬에 사인공세를 받았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맥쿼리 감독 "냉정·유머 갖춘 원작 주인공에 반해"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유주얼 서스펙트'와 '작전명 발키리'의 시나리오로 명성을 얻은 인기 작가 출신이다.

맥쿼리 감독은 기자회견에 이어진 미니 인터뷰에서 "원작 소설 속 주인공 캐릭터의 지가우면서도 유머러스한 측면에 매료돼 연출을 결심했다"며 "다행히 톰 크루즈가 (주인공을) 탁월하게 연기해줬다"고 말했다.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에 의해 살해되는 극 초반부 장면과 관련해 미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총기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질문에는 "실은 미국 내 시사회가 지난해 말 코네티컷 총기 난사 사건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다.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취소했다"며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총기 소지 여부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헌법상 엄연된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찬욱 김지운 감독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 영화인들이 할리우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주길 희망한다"며 국내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에겐 "무엇보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 관객의 취향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쓰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준기자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클라우드 아틀라스	15.04%
2	레미제라블	14.20%
3	타워	13.6[illegible]%
4	라이 라플 히어로	11.21%
5	박수건달	10.82%

자료제공: movie.yes24.com (1월 10일 24시 집계 기준)

'요셉…' 임자 제대로 만났네!

조성모·송창의·정동하·임시완 주인공 맡아

조성모·송창의·정동하·임시완 등이 출연해 2013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다음달 12일~4월 11일·잠실 샤롯데씨어터)에 나설 화려한 라인업이 공개됐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작곡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극작가 팀 라이스가 콤비를 이뤄 1968년 발표한 이 작품은 성서 속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과 역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소 왜곡될 수 있는 종교적인 소재를 대중적인 음악과 노래, 무대로 재해석했다.

국내에서는 1994년 라이선스 계약도 없이 유연·신효범 등의 주연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였고, 20년 만에 정식 라이선스를 얻어 국내 팬에게 인사한다.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 뮤지컬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는 송창의, 록밴드 '부활'의 보컬 정동하, 아이돌 그룹 '제국의아이들'의 멤버 임시완이 주인공 요셉 역으로 분한다.

공연 내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해설자 역에는 뮤지컬 배우 김선경·최정원·리사가 캐스팅됐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은 뮤지컬 배우 이종구, '부활'의 전 보컬 김재희가 맡는다. 문의: 070-4486-8522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임시완, 송창의, 정동하, 최정원(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작 라이선스 홍수 속 신선한 창작뮤지컬 떴다

'아르센 루팡' '여신님이 보고 계셔' 주목

최근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넘쳐나 재공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선한 창작 뮤지컬들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다음달 14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초연할 '아르센 루팡'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프랑스 인기 소설 루팡 시리즈를 뮤지컬화한 작품이다.

마음을 훔치는 정의로운 도둑 루팡 역으로 '라카지' '헤드윅'의 김다현,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양준모가 출연한다. 잔인하고 파괴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조세핀만을 사랑하는 레오나르도 역은 '노트르담 드 파리'의 서범석과 670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신예 박영수가 더블 캐스팅됐다. 문의: 02)736-3289

15일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개막할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적군과 아군이 무인도에서 함께 생활하며 믿음을 쌓아나가는 이야기다.

2011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뮤지컬 부문에 선정돼 당시 관객들과 관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의 창작 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인 예그린앙코르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문의: 02)744-7090 /박지원기자

손정범 김다미 김한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 연주회 잇따라

금호아트홀이 선정한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의 연주회가 17일~다음달 28일 매주 목요일 열린다.

'2013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라는 타이틀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기타리스트 김진희, 피아니스트 손정범, 비올리스트 심효비 등이 차례로 무대를 꾸민다.

17일 첫 무대를 장식하는 김다미는 지난해 10월 제8회 하노버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우승으로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과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등 널리 사랑받는 레퍼토리들을 연주한다.

24일에는 국내파 기타리스트 김진희가 산츠의 '스페인모음곡', 타레가의 '네 개의 마주르카' 등 대표적인 클래식 기타곡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손정범은 31일 베토벤·쇼팽·브람스·리스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다음달에는 비올리스트 심효비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리코더리스트 염은초의 바흐 레퍼토리,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브람스 소나타가 이어지고, 2009년 베를린필 아카데미 오디션에서 관악 부문 한국인 최초로 합격한 플루티스트 김세현이 28일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문의: 02)6303-1977 /김현준기자

wind8686@naver.com

What's New

명카주몽 브랜드 Sweet SOUP(스위트 숩)에서 퍼 하이힐을 활용한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소개한다. 과감한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싶다면 퍼 베스트를 추천한다. 모양이 루로 실더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우터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퍼 베스트는 실내에서도 화려하고 눈에 띄는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미나소녀코리아는 파우치 속에 화장품처럼 넣어 다니며 손쉽게 뷰티 케어할 수 있는 속눈썹 고데기와 네일 케어기, 에티켓 커터기, 전동칫솔, 제모기 등 파우치 시리즈 5종을 출시한다. 파우치 시리즈는 마스카라 모양의 디자인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감각적인 색상의 스타일리시한 점도 특징이다.

제이티폭스(atfox.co.kr)는 국내 제조 제품을 주원료로 개발한 신개념 뷰티 브랜드다. 주 타깃은 18~24세 젊은 층으로 피부 컬러에 적합한 골치(지성), 쿨치(다음임), 과일치(굳이) 세 가지 라인의 제품으로 출시됐다. 각 라인별로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으로 구성됐다.

실크퍼프(SLEEK PUFF)는 분당 1만2600회의 진동과 25도 각도의 헤드가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얼굴 굴곡에 따라 진동 회전해 밀착감과 그립감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항균, 저변형, 고밀도 재질의 TECHNOPOROUS(쿠션셀) 퍼프를 사용해 밀착력, 지속력, 커버력 향상으로 차원이 다른 윤광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준다.

예스24는 우리카드와 제휴해 예스24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예스24 우리V카드(30)'를 출시했다. 예스24에서 판매 중인 도서, 음반, DVD, 전자책 결제 시 30%의 할인이 제공되며 횟수 제한 없이 월 1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병대 전역 현빈의 첫선택 '칸타타'

롯데칠성음료 CF모델 계약

롯데칠성음료가 최근 해병대 전역으로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온 배우 현빈을 칸타타의 새로운 모델로 캐스팅했다.

드라마 '시크릿가든'으로 최고 인기를 누렸던 현빈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면서 더 굳건해진 한류를 굳혔다. 또한 모범적인 군 생활로 당당하고 진솔한 이미지를 만들어 광고계에서도 최고의 모델감으로 꼽히게 됐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현빈이 제대하기 전부터 칸타타의 가장 적합한 광고 모델로 낙점하고 현빈 측과 꾸준히 접촉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특히 지난해 말 롯데칠성음료는 현빈의 해병대 제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짜 남자 현빈씨의 제대를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현장에 모인 국내외 3000여 팬들에게 따뜻한 칸타타 커피를 나눠주는 등 현빈 잡기에 공을 들여 결국 현빈과 올연말까지의 모델 계약을 성사시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병역을 마치고 최고의 남자배우 이미지를 가진 현빈을 내세워 새로운 칸타타 스토리로 시장 1위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년회 하러 제주 간 멋진 회사

'트라이씨클' 2박3일 힐링

온라인 패션 비즈니스 전문 기업 ㈜트라이씨클 임직원들은 3~5일 2박3일에 걸쳐 '힐링 월드 in 제주'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이색 신년회를 진행했다.

이번 2013년 신년회는 그간 임직원들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012년을 돌아보고 심신의 휴식을 갖는 시간으로 조를 자유여행과 해비치 호텔에서 임직원들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시무식을 진행했다.

트라이씨클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SNS 커뮤니티 야머(yammer) 앱을 임직원 전원이 핸드폰에 설치해 시무식 기간 내내 조별 소식 공유 및 기업문화에서의 활발 이션을 전송받아 대면 수준을 하는 등 온라인 패션 IT 그룹으로의 면모를 보여줬다.

레스모아 가면 새신발 '반값'

이달말까지 신년 세일

슈즈 멀티스토어 레스모아가 2013년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 기념으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신년 세일 이벤트를 실시한다.

31일까지 레스모아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신년 세일 이벤트는 보온성은 물론 방수성까지 갖춘 운동 부츠와 패딩부츠부터 다가올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로버스의 옥스퍼드화, 하이탑 슈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최대 반값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클래식한 스타일의 컴벌어스로 유명한 에그 전 품목을 30% 할인하며 로버스 단독 매장에서 에그 구매 시 고급 골을 증정을 선물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전 고객에게는 세탁 서비스 및 무료 포장 서비스를 제공해 신년 선물로 제격이다.

강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포함

3월말까지 집중단속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사진)는 올해부터 관내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공회전 제한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먼저 구는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지정되어 있는 기존 공회전 제한 구역 22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특별 관리한다.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주정차 단속원 12개 조 24명은 도로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즉각 중지토록 하고 제한 시간을 초과할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한국문화·복지 특화 신·편입생 2차 모집 실시

원광디지털대학교는 다음달 13일까지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지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원격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디지털대학교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웰빙 건강, 한국 문화, 실용 복지 분야의 특성화 학과가 강점이다. 모집 학과는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철물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로 총 3개 학부 18개 학과다. 문의 wdu.ac.kr

IBK 기업은행

설 명절 앞둔 중소기업에 3조 규모 특별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설날을 맞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다음달 25일까지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원자재 결제·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5억원까지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 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결연한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할인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채권을 할인받는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장 대출금리 감면 외에 0.5%포인트를 추가 감면해준다.

What's New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는 12일 세종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신·편입생들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오리엔테이션은 명사 특강, 학사 운영 소개, 학과별 간담회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명사 특강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윤광혁 교수의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아이고젠에서 헬스케어 브랜드 K-뉴트라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고 이달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K-뉴트라 콜라겐 3종 무료 샘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 샘플은 저분자 2(나노)콜라겐이 100% 함유된 뉴트라 콜라겐 그라놀 맛있고 섭취가 간편한 뉴트라 콜라겐 젤리-블루베리,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 대용 식품인 뉴트라 콜라겐 다이어트 쉐이크 등이다. 문의 knutra.com

홍익대학교 총동문회는 '2012년 자랑스러운 홍익인상'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경영 부문 신평전 전진점퍼㈜ 대표 ▲문화예술 부문 윤호진 홍익대학교 공상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교수 ▲사회봉사 부문 김광호 한국소에이징(?)연설학 대표 ▲스포츠 부문 김광혁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파크텔 총지배인(사장) 등이다.

코데즈컴바인은 11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배우 고준희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사인회가 진행되는 동안 게릴라 이벤트인 럭키 드로(LUCKY DRAW)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당첨된 5명에게 코데즈컴바인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팬사인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한 신년 스페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NS홈쇼핑은 12일 실용성과 디자인을 고루 겸비한 겨울 방한화 특집전 방송을 편성했다. 1시45분에 방송되는 에뚜라 싸이 에어워크 윈터부츠는 오래 신을수록 더욱 편안하고 눈·비에 젖지 않으며 내부는 보아털을 사용해 보온성이 높다. 이날 방송을 통해 7만9030원(자동주문시)에 구입할 수 있으며 블랙, 브라운, 베이지, 카키 총 색상 선택이 가능하다.

포니(PONY)에서 최적의 기능과 다채로운 컬러감으로 무장한 패션 러닝화 '그리니치(GREENWICH)'를 출시했다. 그리니치 러닝화는 파일론과 고무 소재를 혼합한 신규 소재 아이유를 밑창으로 사용해 보행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적으며 뛰어난 쿠셔닝으로 발의 피로감을 덜어준다. 가격은 6만9000~9만3000원.

책콘스터디에서 2013년 새 학년 새 학기 교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5일까지 2013년 천재교육 교재 뒤 표지에 있는 ISBN(고유의 도서 번호 13자리)을 홈페이지에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2013년 1학기 천재교육 초등학생용 교재를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롯데리아 모짜버거 세트를 증정한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하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8 Do you have a cell phone? 소유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사진으로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핸드폰 갖고 있어요?
아니오, 갖고 있지 않아요.
이 표가 당신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몇이나 있어요?
그애겐 이미 사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앨범이 없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Do you have a cell phone?
No, I don't.
Does this ticket belong to you?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do you have?
He already has pictures, but he doesn't have an album ye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You 가지고 있어요 a ticket, don't you?
B No, I don't.

정답 hav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Does this [cell phone / passport] belong to you?

2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 aunts and uncles] do you have?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material	명 재료, 자료, 자재	building materials 건축 자재
matter	명 문제, 일 동 중요하다	on an urgent matter 급한 일로
opportunity	명 기회	job(employment) opportunities 취업 기회
refund	명 환불 동 환불하다	get a full refund on the item 그 물품에 대하여 전액 환불을 받다
service	명 (오래 계속되는) 근무, 서비스 동 (차량·기계를) 점검하다	ten years of service to the company 그 회사에 10년 근속
survey	명 설문 조사 동 조사하다, 살피다	a market survey 시장 조사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속 사람 수 말하기

There is **one man**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사진 속 장소와 함께 등장인물의 수를 말해준다. 위와 같이 사람 수를 말한 뒤에 in the picture를 붙여서 말하면 된다.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가 등장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숫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눈에 파악되지 않으면 수량 형용사로 표현해 보자.

▶ 숫자로 표현하기

There is **one man**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There is **one woman**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There is **one person**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 수량 형용사로 표현하기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성용 거함 첼시 '격침'

컵대회 4강 1차전 풀타임 활약…파상공세 온몸 저지 평점 7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거함' 첼시의 발목을 잡았다.

기성용은 10일 오전 영국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2~2013 캐피털원컵(리그컵) 준결승 1차전 원정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슈팅 수 24-5로 첼시는 스완지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은 슈팅을 날리며 공격을 주도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은 기성용은 이날 수비에 집중하며 첼시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스완지는 변변한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로 연결하며 먼저 웃었다. 전반 38분 첼시의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가 자기 진영에서 골키퍼의 짧은 패스를 받고 머뭇거리던 사이 조너선 데 구즈만이 바짝 따라붙어 볼을 빼앗았고, 미추가 볼을 받아 왼발로 감아 차 골망을 흔들었다.

다급해진 첼시는 후반 프랭크 램퍼드와 최근 영입한 뎀바 바 등을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후반 추가시간 이바노비치가 골키퍼에게 한 패스를 그레엄에게 뺏기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 무너졌다.

1차전을 승리한 스완지는 2주 뒤인 24일 홈구장인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으로 첼시를 불러들여 2차전을 치른다.

경기 후 영국 유로포스트는 "안정적으로 팀 수비를 이끌었다"고 평가하며 기성용에게 평점 7을 부여했다. 수비수 애슐리 윌리엄스가 평점 9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고, 선취골을 넣은 미추가 8점으로 뒤를 이었다. 골닷컴 역시 기성용에게 별 3개(5개 만점)를 주며 호평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성용(왼쪽)이 10일 열린 첼시와의 잉글랜드 캐피털원컵(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 선발 출전해 브라질 출신의 첼시 미드필더 오스카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대세 수원과 3년 계약

연봉 3억원선…"팀 우승 이끌겠다"

'인민 루니' 정대세(29·사진)가 수원 삼성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은 10일 "정대세에게 서정원 감독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14번을 부여했다"며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파워와 빠른 스피드로 공격의 활로를 만들고 팀의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대세는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2006~2009년)를 거쳐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VFL 보훔으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분데스리가 2부 팀인 FC 쾰른으로 팀을 옮겼지만 소속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자 그해 11월 본격적으로 K리그 진출을 시도했다.

수원은 쾰른에 30만 유로(약 4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했고, 연봉은 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세는 "전통 있는 구단에 들어와서 영광"이라며 "독일에서의 경험을 잘 살려 이번 시즌 수원의 우승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한 뒤 괌으로 떠나 전지훈련에 합류했다. /정은주기자

김연아·김진서 피겨선수권 대표 확정

'피겨 여왕' 김연아(23)와 남자 피겨 유망주 김진서(17)가 3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의 한국 대표 선수로 공식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두 선수를 대표로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김연아는 현역 복귀전인 지난해 12월 독일 NRW트로피 대회에서 종합 201.61점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에 필요한 최소 기술점수(쇼트 28점·프리 48점)를 넘겼고 이달 5~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종합선수권대회에서 210.77점으로 우승해 대표 자격을 얻었다.

김진서는 지난해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프리스케이팅 최소 기술점수(65점)를 넘긴 데 이어 지난달 NRW트로피에서 쇼트프로그램 최소 기술점수(35점)를 넘겼다. /김민준기자

김진서(왼쪽)와 김연아

지동원 첫 연습경기서 득점포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를 앞둔 지동원(22·아우크스부르크)이 연습경기에서 골 맛을 봤다.

지동원은 10일 터키 안탈리아의 벨레크에서 열린 독일 3부리그 팀 한자 로스토크와의 연습경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1-0으로 앞선 전반 39분 팀의 결승골을 터뜨렸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5분 토비아스 베르너의 선제골과 지동원의 결승골, 후반 슈테판 히언와 연속골이 터지며 4-1로 대승했다.

구자철 역시 지동원과 함께 선발로 나서 전반전을 소화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치른 첫 연습경기에서 '득점 본능'을 과시한 지동원은 19일부터 이어지는 리그 후반기에도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준기자

지동원

박주영 50분 넘게 헛심 레알 마드리드에 완패

박주영(28·셀타 비고)이 10일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스페인 코파델레이(국왕컵) 16강 2차전에 선발로 나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박주영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에 막혀 슈팅은커녕 공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다 후반 10분 이아고 아스파스와 교체됐다.

셀타 비고는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레알 마드리드에 0-4로 패했다.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2-1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킨 셀타 비고는 결국 1·2차전 합계 2-5로 뒤져 16강에서 탈락했다. /김민준기자